

전남 청년인구 유출 막을 길 없나

5년째 증가세...20년간 누적 순유출 여수·목포·고흥順 '연양인구' 比 순유출률 고흥 8.35%, 곡성·보성 7%대

전남의 청년인구 순유출이 5년째 증가하며 지역 내 인구 감소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내 청년층(20~34세) 순유출 인구는 2015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시·군별 청년인구 누적 순유출이 가장 많은 지역은 여수시, 가장 적은 지역은 광양시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연구원은 16일 "한눈에 보는 광주전남 '이슈&통계'를 발간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감소위기지역(16개

군)이 포함된 전남의 청년인구 순이동자 수 통계(2000-2020년)를 살폈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년 간 청년인구 누적 순유출은 여수시(3만7천868명)가 가장 많았다. 목포시(2만4천394명), 고흥군(2만152명)이 뒤를 이었다.

전남 22개 시·군 중 광양시에서만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순유입이 나타났

연도별 청년 순유출 인구수를 살펴보면 2002년(2만6천741명)이 청년 순유출이 가장 많았던 시기이며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5년(4천323명)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청년 '연양인구'(해당 연도의 중간일인 7월1일의 인구 수) 대비 전남의 평균 순유출률은 3.21%로, 고흥군(8.35%)이 가장 높고 곡성군(7.70%), 보성군(7.16%) 순이다.

연도별 순유출률이 높은 지역은 2016년 장흥군(20.85%), 2002년 강진군(16.60%), 2020년 구례군(15.23%)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정 광주전남연구원 인구정책지원센터장은 "국가 불균형 성장으로

수도권 지역에 대한민국 인구의 반 이상이 거주하는 비정상적 상황에서 청년인구가 교육과 일자리, 더 나은 생활 인프라를 찾아 수도권 지역으로 옮겨가는 사회적 유출이 전남도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심화시키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청년에게 기회와 성장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거주가 가능한 전남의 가치 재창출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전남연구원의 '한눈에 보는 광주전남'은 지역의 주요 현안과 이슈를 시각화해 인포그래픽, 영상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변은진기자

김지사 "김대중 정신 계승·세계화 최선"

서거 13주기 추모간담회서 김대중 정치학교 특강

김영록 전남지사는 16일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모간담회'에서 특별 강연을 통해 "김대중 정신 계승과 세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의 '세계의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전남도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대중 정치학교 초대 교장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을 비롯한 전·현직 정치인, 사회 저명인사 등 김대중 정치학교 수강생 70여명이 함께 했다.

김지사는 특강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 정신 계승을 위한 전남도의 역할을 강조하고 세계평화 지도자와의 연대를 통한 세계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전남도는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한 고장으로서 대통령의 숭고한 삶과 정신을 후대에 전하고 세계 만방에 널리 알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최초로 개최한 2021 김대중 평화회의를 세계평화로 상징되는 품격있는 국제행사로 더욱 발전시키고 목포 삼

학도 '김대중-넬슨 만델라 세계평화공원', 신안 하의도 '한반도 평화의 숲' 조성 등 다양한 추모사업과 함께 초광역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선도해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한 물꼬를 터나갔다"고 말했다.

또한 김지사는 "김 대통령께서 평소 '지역, 계층, 세대 간에 분열하고 갈등해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하셨는데 서거 13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은 다시금 분열과 갈등이 팽배해진 상황"이라며 "전남도는 김대중 대통령의 숭고한 정신과 신념을 계승해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모두가 하나 되는 대동세상,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김대중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아 18일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추모식을 시작으로 25일 전남도청에서 '추모학술행사' 등 김대중 대통령 추모행사를 개최한다. /김재정기자

광주시립도서관 토크콘서트·독후체험 등 9월 독서의달 행사 '풍성'

광주시립도서관이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16일 광주시립도서관에 따르면 무등도서관은 9월17일 디지털정보 도서관(전일빌딩245 2층)에서 안창욱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와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 '인공지능 작곡가 이봄(EvoM)을 소개합니다'를 진행한다.

사직도서관은 9월20일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 분야 전문위원이자 '이런 말, 나만 불편해?'의 저자 김효진 작가와의 만남을 현장강연과 온라인(ZOOM)으로 진행하며, 산수도서관은 9월27일 '10대의 무기력'의 저자 차경희 작가와의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강연 외에도 고체치약 만들기, 나만의 종이피자 만들기 등 독후체험활동과 각종 전시, 도서 연재자 탈출, 도서2배로 대출 등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17일부터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문화행사' 메뉴에서 선착순 접수하며 수강료는 무료다.

진재호 시립도서관장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시민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특별 행사를 통해 도서관에서 작가와 소통하고 책과 함께 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무등도서관(062-613-7727), 사직도서관(062-613-7776), 산수도서관(062-613-781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선강기자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정례회의 16일 오전 광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관·군·경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한 '2022년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한 문인 북구청장이 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광주북구 제공>

광산구 임방울대로 '견고 싶은 가로수길' 선정

느티나무 등 800그루 식재...환경사찰 등 따죽지 조성

광주 광산구 소재 1.2km 구간의 임방울대로가 '견고 싶은 가로수길'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시는 16일 "온라인 시민 투표와 도시숲위원회 현장심사를 통해 2022년 견고 싶은 가로수길에 광산구 임방울대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 '견고 싶은 가로수길' 선정은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가로수길을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임방울대로 가로수길은 첨단지구 입구교차로에서 첨단 우리는



행 교차로까지 약 1.2km 구간이다. 가로수 느티나무 등 800그루가 식재되며 하부에는 황금사찰 등 따죽지 조성돼 있다.

시는 임방울대로를 관리하는 광산구에서 2023년 가로수 유지관리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자치구에서 추천 받은 10곳의 가로수길 중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통해 동구 너릿재옛길, 서구 무진대로, 남구 오방로, 북구 하서로, 광산구 임방울대로 등 5곳으로 압축했다.

이후 온라인 시민투표 결과 70%와 도

경전선 기본계획 고시 연기 공식 요청

서동욱 의장 등 순천 도의원, 김지사 면담 의견 전달

경전선 순천 도심구간 통과와 관련, 순천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순천지역 도의원들이 16일 김영록 지사와 면담을 갖고 '경전선 기본계획 고시 연기'를 공식 요청했다.

순천지역 도의원들은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해당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다소 미비했으며 사업이 기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순천 도심 지역을 관통하게 돼 교통체증과 안전사고는 물론, 장기적인 도시발전도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순천과 순천시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만큼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며 경전선 기본계획 고시 연기를 요구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순천시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순천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 부처에 건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토부장관과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광주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경전선은 지난 90년간 한 번도 개량되지 않아 광주·전남 시·도민의 숙원사업이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기획재정부의 설계 적합성 검토가 끝나나 10월 중 기본계획 고시가 될 예정이다. /김재정기자

전남도, 추석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전남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6일부터 9월8일까지 명절선물 및 제수용품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남의 지역 특산품 명성 제고를 위해 원산지 둔갑 행위를 집중 단속해 도내 농수산업을 보호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농수산물 구매하는데 중점을 둔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도내 농·축·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소 50여개소로 주요 단속 품목

은 추석 명절 수요가 늘어나는 배, 굴비, 전복 등이다.

특히 시·군 및 도내 관계기관과 협업체 절저한 현장단속을 벌여 원산지 거짓 표시·혼동표시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재정기자



대광새마을금고

더 멀리, 더 큰 미래를 향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대광새마을금고 이사장 안근원



MG 대광새마을금고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지산지점 | 062)222-1431